

문흥동서 삼각동으로 '광주교도소 1700명 이송작전' 따라가 보니...



19일 오전 광주시 북구 삼각동에 있는 신축 광주교도소 진입로에 재소자들을 태운 법무부 호송 버스가 줄지어 들어서고 있다. 광주교도소는 이날 8시간 동안 재소자 1700여명을 삼각동 신축 청사로 이송하는 작전을 펼쳤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버스 20대 투입 8시간 초긴장 '007 호송'

혼잡 피하려 5·18묘지 우회
군·경 곳곳 배치 철통 경계
고장대비 열쇠전문가 배치도

19일 오전 7시 광주시 북구 문흥동 광주교도소 주변은 긴장감이 넘쳤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예정된 재소자 이송을 앞두고 광주교도소 직원,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찰, 31사단 소속 군병력 등 600여명은 주요 거점을 지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광주교도소 주차장에서 출발하는 철저히 통제됐다. 직원들은 차량을 주차하자마자 '어떻게 오셨느냐'며 방문 목적을 확인했다. 안개가 서서히 걷힐 무렵인 오전 7시50분 교도소 출입문 면발지에서 차량행렬이 보이기 시작했다. 경찰 순찰차를 선두로, 호송 책임관이 탄 검정 차량 2대, 그 뒤로 10대의 법무부 소속 호송 버스가 줄지어 나왔다. 뒤로는 경찰 기동차와 순찰차, 검정 승용차가 뒤 따랐다.

광주교도소가 44년만에 문흥동을 떠나 신청사가 있는 삼각동으로 이사를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호송 버스에는 짙은 선팅이 돼 있어 재소자의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다. 버스 전면부엔 맨 앞 좌석에 앉은 무장 경찰의 모습만 보였다. 줄지어 선 차량은 경찰의 신호 통제를 받아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담양 방면으로 향했다. 뒤따르던 본보 취재 차량은 신호 통제에 걸리면서 순간 호송 차량을 놓치기도 했다. 담양으로 향하던 차량은 북구 석곡동 주민센터 삼거리에서 국립 5·18민주묘지로 향했고, 망월동 묘역을 지나 효령동 수곡마을 삼거리에서 다시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후 용산교차로에서 광주패밀리랜드로 좌회전한 뒤 일곡 교차로에서 다시 방향을 틀어 이날 오전 8시15분께 북구 삼각동에 있는 새집에 도착했다. 문흥동 광주교도소를 출발한 지 25분만이었다. 광주교정본부는 이날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문흥동을 관통하는 도심 경로 대신 국립 5·18묘지를 경유하는 루트를 택했다.

약 7km 거리로 도심을 관통할 때보다 2~3km 정도 멀지만 실제 시간은 단축됐다. 이날 호송 버스는 10대씩 2개 조로, 1시간 간격을 두고 움직였다. 1조 버스가 문흥동 교도소에서 재소자를 싣고 출발하면 삼각동 교도소에서 2조 버스가 문흥동으로 향하는 형식이다. 출발한 버스는 대부분 신호대기 없이 도착했다. 이날 8시간 동안 6차례의 호송 작전을 통해 신축 교도소로 이송된 재소자는 사형·무기수 110여명이 포함된 수용자 1700여명이다. 패밀리랜드 입구 등 7곳의 거점에는 형

사들과 교통경찰이 나와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신축 교도소 수감실의 잠금 장치 고장 문제에 대비해 삼각동 교도소 입구에는 열쇠 전문 기술자 3명이 대기하기도 했다. 또 문흥동 교도소 입구에는 몇몇 재소자 가족의 모습이 보였다. 문흥동 교도소 입구에서 호송 차량을 지켜본 택시기사 최모(65)씨는 "평소 이곳을 자주 오가는데 저런 행렬은 처음"이라며 "앞으로 저 부지가 어떻게 사용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장보의 광주교도소장 "무사 이송 도와 준 군·경 감사"

19일 오후 광주시 북구 삼각동 신축 교도소로 무사히 이사를 마친 장보익(59) 광주교도소장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재소자 1700여명의 이송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장 소장은 "이사를 준비하면서는 외부 인력들이 교도소 내에 많이 투입돼 우려되는 부분이 많았고, 당일에는 호송 중 도주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훈련과 준비를 했다"며 "계획대로 이송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준 기관에 고맙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홍남순 변호사·박관현 열사·김남주 시인 옥고 치러

광주교도소 거처간 수감자는
홍남순·박관현·명노근·조아라·김남주·김문수... 44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문흥동 교도소는 5·18 관련자 등 수많은 민주화운동 인사가 옥고를 치른 곳으로 유명하다. 1980년 5·18 당시에는 시민 427명이 내란죄 등으로 몰려 광주교도소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인권운동의 대부' 홍남순 변호사는 5·18 당시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년6개월을 복역했다. 5·18 주역인 박관현 열사는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하다가 1982년 4월5일 체포돼 내란죄 등으로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5·18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40여일 간 단식 끝에 그 해 10월 사망했다. 그가 단식 도중 숨진 방은 직선제 개헌투쟁을 하다가 1988년 수감

된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생활한 방이기도 하다. 광주의 '작은 다윗' 명노근 선생은 5·18 당시 수습대책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상무대영장과 군사법정을 거쳐 광주교도소에서 1년6개월 복역했고, '광주의 어머니' 조아라 여사도 오월 당시 수습대책위원으로 활동하다가 계엄군에 끌려가 6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김남주 시인은 1979년 '남민전'(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사건으로 10년 가깝게 투옥생활을 하다가 49세의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활동하던 중 1979년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1980년 5월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으로 광주교도소에 구금된 인물들도 있다.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들로, 이들은 징역 1년6개월에서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 이밖에 삼각동 신청사로 이송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42 해질 17:52 | 맑음 12:45 | 구름 23:27

일교차 커요
대체로 맑지만 일교차가 크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맑음	14/26	보성	맑음	9/25
목포	맑음	15/24	순천	맑음	13/27
여수	맑음	17/24	영광	맑음	12/25
나주	맑음	11/27	진도	맑음	12/25
완도	맑음	14/25	전주	맑음	13/25
구례	맑음	10/27	군산	맑음	12/23
강진	맑음	11/26	남원	맑음	9/25
해남	맑음	10/26	축산도	맑음	17/21
장성	맑음	10/26			

◇바다 날씨

	오전	파고(m)	풍향	파고(m)	오후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	북~북동	0.5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5
남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5
서부	앞바다(동)	북~북동	1.0~2.0	북~북동	1.0~2.0
	앞바다(서)	북~북동	1.0~1.5	북~북동	1.0~1.5

◇생활지수

식중독	주의
운동	보통
산불	낮음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6:19	11:28
	19:05	00:00
여수	밀물	썰물
	00:47	06:46
	13:37	20:10

◇주간 날씨

21(수)	22(목)	23(금)	24(토)	25(일)	26(월)	27(화)
☀	☀	☀	☀	☀	☀	☀
14/26	13/26	12/25	13/23	12/23	12/21	12/20

무등산 올들어 첫 단풍... 내달 4일 절정

내달 7일 정상 개방
무등산국립공원에 첫 단풍이 물들었다. 단풍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다음달 7일에는 올 들어서 3번째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가 예정돼 있다. 19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무등산 원호사 부근 등에서 단풍이 물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올해 무등산 첫 단풍은 지난해보다 하루 늦고, 평년 보다는 하루 빠른 것이다. 기상청은 이날 첫 단풍을 시작으로 서

서히 무등산이 빨갛게 물들면서 다음달 4일 단풍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낙엽수는 일반적으로 일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데, 특히 9월 상순 이후 기온이 낮을수록 속도가 빨라진다고 한다. 광주시와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단풍이 절정에 달하는 다음달 7일 군·당국의 협조를 얻어 천왕봉, 지왕봉, 인왕봉 등 무등산 정상부를 시민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교육청, 전남교총 회장 표절 의혹 조사

전남교육청은 전남교총 김모(57) 회장이 표절적으로 연구대회에서 임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2년 전남교총 주최 현장교사 교육연구대회에서 교육행정 분야에 출품해 최고상인 1등급을 받았다. 당시 모 학교 교감이었던 김 회장은 '새내기 교사의 교수 학습 능력 신장 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로 한국교총 주최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에 나갔지만, 심사과정에서 다른 교사의 보고서를 베낀 표절적으로 드러나 수상이 취소됐다. 전남교육청은 전남교총에 관련 자료

를 요청했으며, 인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 회장 외에 표절로 교육연구대회에서 수상한 교사가 더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도 함께 병행할 방침이다. 의혹이 제기되자 한국교총도 조사팀을 구성해 진상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전남교총은 교육청 산하기관이 아니어서 감사 대상은 아니지만, 인사 문제에 있어 영향을 줬다는 점이 드러나면 공무원에 대한 감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우기자 dok2000@

jtbc GOLF 2015 골프아카데미 왕중왕전 메인 협찬사

에스골프

모든분들이 만족하십니다!!
전국 300곳 골프장 무기명 선불카드
그린피 "전액무료"

검색창에 **부킹몰** 을 치세요.

진리.광주지사상품 (수도권 및 부산, 대전상품 상이하니 별도문의 바랍니다.)

구분	가입금액	회원구성	이용기간	연 이용횟수	월 이용횟수	공통사항
S-트윈	670만원	무기명 2인	3년	총 80회 (년 30회)	주중 6회 또는 주중 2회, 주말 2회	그린피(세금포함) + 카트비 전액 무료지원
S-VIP	1,320만원	무기명 4인		총 160회 (년 60회)	주중 12회 또는 주중 4회, 주말 4회	

※ 해당 골프장과는 무관하며 에스골프는 부킹몰(주)에서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 VAT포함 금액

보통형 상품안내 (내국인 한정)

구분	가입금액	회원구성	이용기간	연 이용횟수	월 이용횟수	공통사항
SS-트윈	보증금 : 3,000만원 입회금 : 660만원	무기명 2인	5년	총 120회 (년 24회)	주중 6회 또는 주중 2회, 주말 2회	그린피(세금포함) + 카트비 전액 무료지원
SS-VIP	보증금 : 6,000만원 입회금 : 1,320만원	무기명 4인		총 245회 (년 48회)	주중 12회 또는 주중 4회, 주말 4회	

※ 보증금은 5년 만기시 무이자로 반환되며 입회금은 소멸되는 금액입니다.

에스투어

해외 골프투어
동남아 원하시는 곳 어디나 가능!!
"총 50박 무료!!"

동남아시아상품 (태국,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구분	분양가	회원구성	이용기간	회원혜택(무료)
S-투어(싱글)	297만원	기명1명	5년(년10박)	1박 18홀 기준 전액무료 블로합사항 항공료(TAX, 유류할증료), 석식, 카트비(캐디비, 캐디팁)외, 별도 추가비용
S-투어(트윈)	495만원	기명1명+ 무기명1명		
S-투어(VIP)	880만원	기명1명+ 무기명3명		

※ 상기 금액은 VAT포함 금액

문의전화 **062-415-8811**

지사 서울(수도권지역) 1566-9799 | 경남(경남,부산지역) 051) 916-7070
대전(충남,대전지역) 042) 320-7800 | 부산(경남,부산지역) 051) 916-9700
대구(경북,대구지역) 053) 248-6666 | 울산(경남,부산지역) 052) 260-4575